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8호](2014.4)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
 홍보팀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감동!... 눈물!... 가득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가 3월 29일, 30일 서울포교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존상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포교소로 맞이하였고, 오후 5시에 착좌하였다. 맞이하는 독경이 5시 10분 부회 대표들과 사무국원 참석하에 진행되었다. 2000년도에 종정스님께서 방한하신 이후 한국 진여원이 활동을 시작한 지 약 30여년만에 개최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특별메시지를 주시는 종정스님>

존상참배는 개회식, 퍼포먼스, 독경, 감사의 말, 서교, 테이프커팅, 교도 인사 및 결연의 순으로 행해졌다. 청년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는 “가르침 이전과 이후의 자신”이라는 테마로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 또 가야금 및 북 연주로 진여 부처님께 감사를 올렸다. 이어 청년 및 부회 대표의 감사의 글이 헌상돼 식전을 감사와 눈물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어 헌화 및 테이프커팅이 이루어졌다. 결연은 5명씩 고레이쥬의 잔잔한 음조하에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30일에는 부산 및 창원에서 대형버스 3대를 타고 온 단체참배객들로 포교소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지방교도들은 서울포교소에서 준비한 공양을 함께 나누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많은 담소를 나누느라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

종정스님, 특별 메시지

종정스님께서 존상참배에 특별 메시지를 주셨다. “신초지에 모셔진 존상은 영조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해외교도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해외순교의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존상은 등불 및 향에 많이 그을려졌는데 이는 그만큼 기도를 통해, 오랜기간 구제를 건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종정스님은 “금강선에 이어지는 것, 일단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부모, 교도인, 신도인님의 손과 자신의 손이 하나가 되어 안도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분은 상주하시므로 여러분의 손과 하나가 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전하셨다.



<진여 부처님과 결연의 시간>

이어 “성지로 귀원하지 못하는 분들도 신초지로 이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종정스님은 한국담당을 통해 “혜등원에서 저도 한국에서의 존상참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결연될 수 있도록 화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감사속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라고 마무리 메시지를 주셨다.

국제부 한국담당은 “종정스님께서 한국의 교도들에게 직접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 온기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전했다. 한편, 존상참배는 4월 20일 클로징 세례모니로 마무리된다.

국제부장, 존상 참배

30일 오후 오프닝 행사시에는 국제부장이 직접 참여하여 테이프를 끊었다. 시타라 국제부장은 “진여원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은 법부모, 두 동자님께서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정말 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방교도들, 저도...오픈 세례모니에서 참배했거든요!>

이어 “오늘은 마음의 이어짐을 위해 법부모, 두 동자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끈을 깊이 해 나가기 위해 참배기간 중 몇 번이고 오셔서 자신의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또 “상주는 말이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종정스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고레이주의 음조와 함께 산화>

2014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

존상참배가 진행된 3월 30일 오전 서울에서는 진여원 2014년 상반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사회에는 국제부장, 키노, 스팀타, 이즈시, 요시호리 이사, 마츠모토 감사 등이 참석하여 지난 해 결산을 승인하였다.



<저도....꼬~옥~꼭...맹세합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청년대표 김진수) 2014.3.29



저는 고교시절부터 스포츠 기사를 꿈꿨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방에 있는 신문방송학과를 가려고 했지만, 감정점심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르침이 부족했던 저는 반신반의의 마음이었으나, 영언을 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후 한 유명 언론사에 대학생 인턴기자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그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턴들 중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 기자의 꿈을 놓지 않은 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있던 중 스포츠기자 공모를 보고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이기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원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대학 시절 경험한 것을 오히려 많이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신 분들은 제가 대학시절 유명 언론사에서 겪었던 경험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취업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첫날 문득 7년 전 받았던 감정점심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내가 그 때 받았던 영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료도지사마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료도지사마께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료도지사마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정진하다 보니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취업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저는 이것이야말로 료도지사마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더 바빠져 사실상 절에 오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절에 온 매순간을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에서 중책을 맡은 만큼 항상 고른 마음과 감사함을 가슴에 지니며 매진할 수 있는 신노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부회대표 박노경) 2014.3.29



짧은 생애를, 교도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토대와 기둥이 되시고 받고대수의 힘을 나타내 주시는 두 동자님! 대승이타를 몸으로 실천하시며 교도의 어떤 것이라도 섭수해주시고, 진여일여로써 제섭의 불가사의한 구제의 힘을 용출하시는 개조님과 영조님! 이렇게 직접 뵈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풍족하고 여유롭게 지내던 중 IMF의 격랑에 휩쓸렸을 때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대표이사로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인생이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던 1999년 7월 가르침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종교와 다른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로 시작했었는데 좀 더 알아보자라며 귀원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여원 가르침이야말로 찾고 있던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가르침에 매진해보자는 각오를 다지고 정진을 하는 중 어려움도 있었지만 받고대수와 제섭·섭수의 힘을 받으며 이제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신 초기에는 밥 한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아 인도자로부터 법요 참석 후 저녁 한끼를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정진해가며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알게 되었고 향상해 가면서 부터는 교도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향상해가며 작년에는 영능자의 역할을 받아 이제는 받은 감사를 토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기쁨으로 정진과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참배를 교도대표로서 잘 모셔보자는 생각으로 많은 교도들과 힘을 합쳐 준비하는 과정에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는 진행에 불만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교도분들이 아낌없는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며 게이슈사마께서 화합이라는 화두를

한국 교도들에게 주신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여원에서 오랜 세월 기념을 올려왔던 소중한 상이 참마음과 혼이 스며있는 존귀한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입불개안된 부처님을 맞이하는 귀한 의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존상을 매일 떠올리며 기도를 하던 중 네 분이 제 앞에 직접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우리가 간다"고 하시어 깜짝 놀라고 감격을 했으며 그래서 "진여 부처님과 만나다" 라는 표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참배 준비에 많은 교도분들의 동참과 협조를 받고 화합으로 함께 노력해 가는 모습에 감사를 느끼며 보전에서 "어떻게 해야 잘 모실 수 있을지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많은 한국 교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어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께서 바라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손자 손녀를 모두 만나보고 싶어하시는 것처럼 한국교도 모두를 보고 싶어하시고, 새로운 교도들과도 만나고 싶어하시며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깊은 참마음을 알게 되고 네분을 법신으로 상주를 인식하고 있던 저에게 실체의 모습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자주 뵈고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에도 한국에 많은 고통을 준 역사를 알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셨고, 한국을 방문하여 큰 힘을 쏟아 주시려 했던 참마음이 이제 실현되었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몇몇 사람들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으로, 친구로, 우심의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바로 진여원에서는 그런 차이와 갈등을 섭수와 화합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노력을 진심을 다하여 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평화와 화합의 미래를 향해 실천해가는 진여원의 교도로서 토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부회대표 김연희) 2014.3.29



저희들 신노 교도를 만나러 몸소 한국에 와주신 신노 교수사마, 쇼쥬신 인사마, 교도인사마 신도인사마, 호법선신님! 한국교도들에게 늘 참마음을 쏟아주시는 신노 게이슈사마 감사합니다.

상참배 금강선에 결연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귀한 오늘 이렇게 한국어로 감사의 말씀을 올릴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만 20살, 1987년 건강상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나리타공항에서 입신하고 인도자분으로부터 고산다이와 일여의 길을 받았습니다.

나무 신노 이치노 다이하츠 네항교라고 휴학과 복학으로 고민스러운 시간에 올렸습니다.

일여의 길을 처음 뿔 때, 신노 교수사마의 얼굴이 있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오야소노에 처음 귀원했을 때, 제1정사 1층에서 신노 교수사마를 뵈었습니다. 모두가 두 손을 올리고 환호하는 모습에 저는 영문도 모르지만 같이 손을 흔들었고,

주위에서 저보고 “너는 참 럭키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노 가르침 덕분에 참 럭키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30살, 결혼을 4월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한수행을 개백 첫날부터 결원 마지막 날까지 전부 참석한 그해 4월 29일 신기하게도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신노 소오야사마께서 4월 27일 결혼하셨다고 알게 되어 참마음 속에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6살, 저는 둘째 아들을 5개월 때에 잃었습니다. 료도지사마를 영계로 바치신 그 참마음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이어주셨기에 지금의 우리들은 인연끊기를 하고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소오야사마를 따라, 믿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밝게 보며 이겨내겠습니다.

6월 25일 대승에자에서 한국의 토대가 되라시던 영언을 떠올리며 섬기기를 하는 영능자가 되어 미래를 짚어질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단단히 전해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감사의 글(부회대표 김형태) 2014.3.29



창원에 상주하시는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 삼가 아뢰옵나이다. 석존께서 가르침을 여신 지 2,500여년! 부처님 가르침은 인도에서 발상 후 동진을 거듭하여 중국, 한국, 일본으로, 또한 남동진하여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어가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크나 큰 기쁨 속에 감싸이기도 했으나, 물질과 명예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 및 에고이즘은 끊임없이 짝이 터, 가르침은 어느 듯 그 의미를 상실하고, 불법을 올바르게 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마구니가 횡행하는 혼돈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명의 시대에 대일여래의 맑고 밝은 빛을 출가수행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하는 재가불자들에게도 전하여, 상락아정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새롭게 개창하신 그 큰 자비의 참마음에 저희 신도교도는 감탄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개조께서는 영조 가문 전래의 영능과, 개조 가문 전래의 보제이령을 일체로 하여 진언밀교를 입교하셨으나, 사자상승이라는 비법의 계율에 의해 직계 출가제자 이외에는 대중화가 어려운 한계를 깊이 고민하신 결과,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인 대반열반경을 소의의 경전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비장되어 있는 신통변화와 어리신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목숨을 바쳐 개척한 신도영계에 의한 받고대수의 힘을 종합하여 과거, 현재 및 내세를 동시에 구제함으로서 중생들이 금세에서 상락아정을 구현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 신도엔을 입창, 그 후 전세계로 구제의 영선을 넓혀 오신 엄하고도 성스러운 순교의 과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을 창립하신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의 존상을 케이슈사마의 대자비에 의해 이곳 한국의 땅으로 오신 것에 대해, 밝고 맑은 빛을 찾고 있는 저희 중생들에게는 정말 감사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곳 한국의 땅에는 단일 민족이면서도 분단의 오랜 역사가 고착화되어 비극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의 확대, 세대간·빈부간 갈등,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간 갈등의 심화 등 중생의 어리석음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어두움에 묻혀 있는 이 땅에서도 중생과 사회지도층 모두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원천 모두를 화합과 한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부디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행히 신도 가르침과 결연되어 기쁨속에 정진하고 있는 이 땅의 신도 교도들은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설해주신 그 숭고한 토대의 정신을 보다 확고히 다지고, 부처님을 끝까지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부동의 각오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재가불자로서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상락아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어떤 일에 조우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을,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드립니다.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서 성원하신 인류·지구·우주의 구제를 위해, 그리고 그 성원을 구현하기 위해 케이슈사마께서 앞장서서 행하고 계시는 전세계인의 원하트 만들기에 저희들도 기쁨의 한마음으로 동참, 이 땅에 묻혀 있는 수많은 구제받지 못한 영들과 살아 있는 생명들의 상락아정을 위한 구제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쁘게 정진해 나갈 것을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께 굳게 맹세합니다.

신도엔 한국 교도 대표
삼가 바칩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이모저모



<너 어릴 적 틀림없이 존상참배 했었던단!>



<네!..감사합니다.....그리고맹세합니다!>



<단체참배교도로 북적이는 신도회관>



<존상을 모시고 행하는 감격의 독경>



<함께 기도를 실어주는 국제부 이사들>



<이제, 저의 참마음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상참배 오프닝 세레모니 > 이모저모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교도들...>



<테이프커팅으로 결연개시를 준비하다>



<눈물을 닦고... 이제는... 테이프커팅>



<드디어...진여부처님과의 결연!>



<진여부처님께 전통적인 한국의 멜로디를 바치다>



<아~! 소오야사마!...료도지사마...!>



<감사로 충만한 교도대표, 존상에 헌화>



<청년들의 발랄한 퍼포먼스>